

임플란트 이용 틀니

조선대학교치과병원 보철과 손미경 교수

완전틀니 편하게 쓰려면 임플란트 접목을

뼈 이식 여부·고비용 감안
의사와 보험적용 잘 상담해야
시술 후 정기 검사·관리 필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의료정책의 변화가 수반되고 있다. 특히 치과 치료에 대한 인식과 치료범위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치아우식 및 치아결손으로 손상된 구강형태를 회복하는 형태 수복치료 또는 잇몸질환이나 구내염증 치료와 같은 질환 치료에 국한됐던 치과 치료의 양상이 구강 기능의 회복과 예방치료로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치아가 전부 상실된 고령환자를 대상으로 '원래 불편하다'는 전제 하에 완전틀니를 만들어 사용하던 시대도 지나갔다.

틀니를 사용하더라도 얼굴의 심미성이나 씹는 기능을 최대한 치아가 있었던 상태와 유사하게 회복하고자 하는 환자의 요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치과 치료방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치료기술도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

◇'틀니'의 통증과 불편감=전체 치아를 상실한 환자가 치과에 내원한 경우, 일반적인 치료방법은 완전틀니를 제작하는 것이다.

완전틀니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환자의 식사를 돕는 치아 보철물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틀니가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탓에 그저 잇몸 위에 얹혀 있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틀니가 통증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이유도 이처럼 입안에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랫니가 모두 빠진 경우는 말을 하거나 식사를 할 때 혀의 움직임에 따라 틀니가 들어 올려지면서 불편감과 더불어 음식물이 들어가거나 마찰에 의해 잇몸에 상처까지 내 심한 통증마저 일으키고 있다.

윗니가 빠진 경우에서도 틀니가 입전장 전체를 덮으므로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침이나 음식을 삼키기 어렵고 심지어는 음식의 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헐거운 경우에는 틀니가 입전장에 붙어있지 않으므로 말하거나 씹을 때마다 달그락 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쉽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비용을 들여 틀니를 만들어도 대부분 빼놓고 지내거나 심지어는 여러 치과를 전전하며 안 아프고 잘 빠지지 않는 틀니를 만들어 달라고 방문하는 노인



조선대학교치과병원 보철과 손미경 교수가 환자의 치아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조선대치과병원 제공〉

■ 달라진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2016년 7월 1일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만 70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 → 만 65세 이상(완전 무치악 제외)
본인부담률	의료급여 1종 20%, 2종 30%(본인부담상한·보상제 제외) * 건강보험 50%,차상위 1종 20%, 2종 30%
적용횟수	1인당 2개 이내 (평생 개념)

환자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임플란트와 함께 틀니 고통 해소=그렇다면 완전 틀니를 덜 아프고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임플란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접목해 볼 수 있다.

최근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치아가 한두 개 빠진 경우 임플란트를 심는 것은 일반화됐지만, 완전 틀니에서 틀니가 잘 빠지지 않고 덜 아프도록 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임플란트를 위해서는 충분한 뼈가 있어야 하고 비용이 비싼 단점이 있지만, 임플란트를 완전틀니의 유지 의치로 사용하면 비용 대비 만족감이 높아진다.

노인 환자들의 경우 치아가 상실된 시간이 오래되면서 뼈가 많이 흡수되어 있으므로 임플란트 식립(植粒)을 위해서는 뼈 이식 등의 부가적인 시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또 모든 치아가 상실된 환자에게 빠진 치아 수만큼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

다면 좋겠지만 비용이 너무 고가이므로 전체를 식립하기에 부담스러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완전 틀니를 사용하기는 불편하지만 빠진 치아를 모두 임플란트로 수복하기 어려운 경우, 더 편안하고 덜 아픈 틀니를 만드는 방법이 '임플란트 유지 의치'다.

임플란트 유지 의치는 틀니를 좀 더 편하게 쓰기 위해 뼈가 많은 부위에 최소한의 수만큼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똑딱이 단추나 자석, 또는 연결막대 형태의 유지 형태를 부여해 틀니가 잘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보형제도 잘 활용하면 비용 절감=최근에는 65세 이상의 환자의 경우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서 기존에 식립한 임플란트는 치아형태의 고정성 보철물로 연결하고, 결손한 부분만 부분틀니로 만드는 임플란트 유지 부분틀니 방법으로 치료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임플란트 유지 의치는 환자의 임플란트 식립위치나 교합관계 등을 고려해 치료형태가 임플란트 유지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로 나뉠 수 있으며, 어떤 치료인지에 따라서 임플란트 치료가 치과의료보험이 적용되기도 하고 또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치료전에 치과의사와의 충분한 치료계획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임플란트 유지 의치를 위해서는 아래턱에는 2~4개, 위턱에는 4~6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해 틀니와 연결해 틀니의 탈락을 방지하고 입안에서 움직임을 줄여 더 안정적으로 틀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체 시술기간은 뼈가 치유되는 기간을 거친 후 바뀐 잇몸에 맞춰 틀니를 제작하고 임플란트와 연결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4~8개월 정도의 시술기간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장점을 갖는 임플란트 유지 의치를 고려하는 경우는 뼈가 남아있는 양이나 위치, 잇몸의 상태, 환자의 전신건강 등에 대한 고려가 우선된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계획이 선행돼야 하며 주치의와의 상의를 통해 환자 본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 시술 후에도 정기적인 검사와 구강관리가 요구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3D스마일 장비 추가 도입

광주시 광천동 눈모양빌딩 밝은광주안과(대표원장 김재봉)는 "3D스마일 수술 장비인 'VISUMAX'(사진)를 추가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이로써 밝은광주안과는 호남지역 안과 중 유일하게 3D 스마일 수술 장비를 2대 보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밝은광주안과는 스마일 수술 장비를 2대 이상 보유한 전국 4대 스마일센터로 특화 운영된다.

3D스마일 수술은 라식처럼 각막 절편을 만들거나, 라섹처럼 각막 상피를 벗기지 않고 각막실질만을 분리해 1~4mm 최소절개로 교정하는 최첨단 수술 방법이다.

수술 절개 부위가 적어 각막에 무리가 가지 않고, 수술 다음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해 휴가를 내지 않아도 수술에서 회복까지 부담이 없다. 특히 안구건조증이나, 빛번짐, 통증이 거의 없는 라식·라섹의 장점만을 취합한 수술 방법이다.

밝은광주안과는 지난 2013년 광주·전남 최초로 3D스마일 수술을 도입한 이

후 최근까지 1만여 이상 시술했다. 수많은 수술경험을 인정받아 3D스마일 수술을 개발한 독일 칼자이스사는 김재봉 대표원장을 호남 최초 'Best Skilled Surgeon in SMILE'로 선정하기도 했다.

김재봉 대표원장은 "호남 최다 스마일 수술 안과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5년간 집약된 3D스마일 수술 노하우를 살려 더욱 완벽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서울 등 수도권보다 뛰어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암 재발 방지 치유센터 문 연다

화순전남대병원, 6일 개소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암 생존자들을 위한 '암치유센터 평생건강클리닉'을 운영한다.

오는 6일 개소식을 갖고, 암생존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지정 '광주전남 암 생존자 통합지원센터'로 선정된 이후 3개월간 준비해왔다.

암생존자는 암원인을 목적으로 하는 초기치료(수술·항암화학요법·방사선 치료)를 마친 암환자를 의미하며, 최근 암환자의 생존율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중앙암등록본부는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70%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전남지역암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암 생존자수는 2016년 현재

12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내 암생존자수는 150만명 수준이다.

암 생존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암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정신적 증상 관리, 재발과 전이 예방,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 등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화순전남대병원 암치유센터에서는 의사·간호사·영양사·사회복지사 등 보건인력팀을 구성, 암 생존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류성업 암치유센터 평생건강클리닉 센터장은 "암환자는 치료는 물론, 치료 후 합병증을 예방하고 정신적 충격에 따른 우울감 등을 극복해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광주·전남 암 생존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많이 움직여야 치매 발생률 낮춘다

치매 발병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소 중 '신체 비활동'이 기여하는 위험도가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체 활동을 많이 할수록 치매 발생률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는 뜻이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선임 연구위원과 고숙자 부연구위원의 '치매 위험요인 기여도 분석과 치매 관리 방안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연구에서 제시한 치매의 7가지 위험요인의 상대 위험도는 '신체 비활동'이 1.82로 가장 높

았다. 이어 우울증 1.65, 65세 미만 성인의 고혈압 1.61, 65세 미만 성인의 비만 1.60이다. 흡연과 교육 수준은 각각 1.59, 당뇨병 1.46이다.

이 상태 위험도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확인된 각 질병의 유병률을 토대로 특정 위험요인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간주하는 '인구기여위험도'를 산출한 결과, 신체 비활동이 28.74%로 다른 요인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매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 010-5236-745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엔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